

경제포커스

■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진료 시스템 구축 전략

김남현(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 의료산업을 바탕으로 한 의료관광 및 의료관광 네트워킹

원용희(용인대 관광학과 교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진료 시스템 구축 전략

김남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knh@yumc.yonsei.ac.kr

I. 차세대 성장동력, 의료관광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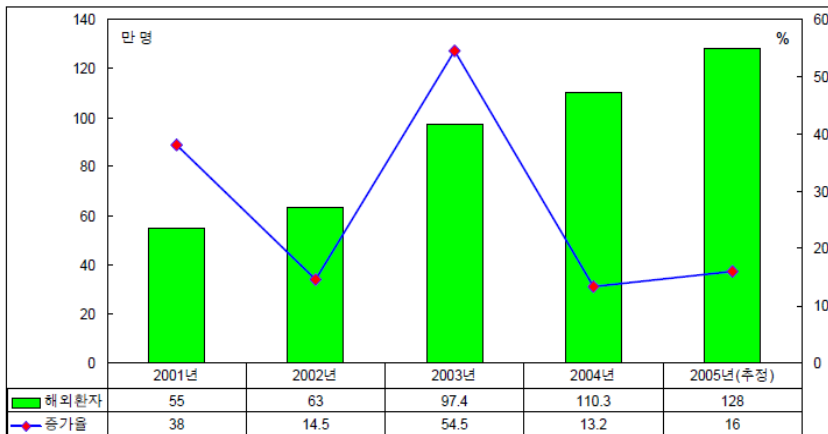
지난해 수출입 상품수지 흑자는 약 292억 달러인 데 비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187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로 번 돈을 서비스로 다 날린 셈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는 매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의 의료·교육·관광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서비스수지 적자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해외로 나가는 소비인구를 줄이고 외국인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준 높은 서비스 발굴과 제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근 그 해법으로 관광산업 중흥을 꾀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차세대 서울의 비전으로 '관광서울' 을 표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시민, 나아가 한국 국민을 소위 먹여 살릴 수 있는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박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공학교실 교수
- 휴대형 진단치료기기의 임상데이터 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보건복지부), 유비쿼터스 원격의료 기반의 서울시 중심 동북아 의료허브 구축 (서울시) 사업 수행

관광 아이템은 무엇일까. 현재까지 극히 저조했던 해외환자 유치를 비롯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보건의료·관광·무역업계의 한 목소리에 힘입어 최근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른 관광산업에 비해 의료관광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이유는 건강검진이나 치료차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이 일반 관광객에 비해 많게는 10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예 따른 아시아의 고소득자를 비롯해 비싼 의료비에 부담을 가진 미국의 무(無)의료보험자, 병원 부족으로 인한 대기 시간에 지친 유럽인, 그리고 9.11 테러 이후 중동의 부호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료소비자들이 선진국의 10~20% 수준의 의료비용으로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광까지 겸할 수 있는 아시아의 병원을 찾아 몰려오고 있다. 우리에겐 낯설고 새로운 테마관광 아이템인 '의료관광'은 이미 5~10년 전부터 아시아 경쟁국들에게 매년 엄청난 성장을 가져다주고 있는 차세대 국가 핵심 사업이다. 태국은 2005년 한 해 동안 128만 명의 해외 의료 환자를 유치하여 약 9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2004년 말 쓰나미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는 해외 의료 관광객이 전년대비 16% 늘어났으며, 수익 기준으로는 35%나 증가했다. 선진 의료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저렴한 진료비 등의 장점을 갖춘 인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의료관광 시장이 해마다 25% 성장해 2012년에는 20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Kasikorn Research Center of Thailand

<그림 1> 태국 민간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

그러나 한국은 아시아 의료관광국의 대열에 없다. 한국은행의 ‘2006년 서비스 수지 세(細)분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인 국내에 들어와 의료서비스를 받고 지불한 금액은 약 5천 90만 달러로 그나마도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류 스타가 시술한 병원을 중심으로 미용·성형 수술 목적의 관광객이 증가한 덕분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병원급(級) 109개 기관, 의원급 436개 기관 등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도에 기관당 196.8명꼴인 총 10만 7244명의 외국인을 진료했는데 이중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가 10만 6487명으로 나타나 해외거주 외국인은 기관당 1.4명꼴인 757명에 불과했다.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수가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수십에서 수백 배나 뒤처질 만큼 극히 미미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런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난 3월 5일 보건복지부는 경쟁력을 갖춘 국내 의료기관 30곳과 손을 잡고 해외환자 유치에 위한 ‘한국 국제의료서비스 협의회’를 발족하며 정부지원금 5억 7천만 원을 포함한 10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해 미국 교포, 중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공동 해외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2007년까지 환자 유치를 1만 5천명 수준으로 높이고 2015년에는 해외환자 4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는 희망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정부 지원금의 규모와 해외환자 유치의 발목을 잡는 법제도, 낮은 인프라 수준 등 산적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아 의료관광 선진국의 길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II. 의료관광산업, 그 가능성 (Vision)

삼성의료경제연구소(2006)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의료산업 경쟁력 고찰 연구’에서 우리나라 의료산업 경쟁력은 미국 대비 26%, 독일 대비 33%, 일본 대비 38% 수준이라고 밝혔다. 과연 우리에게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이 시점에서 우리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고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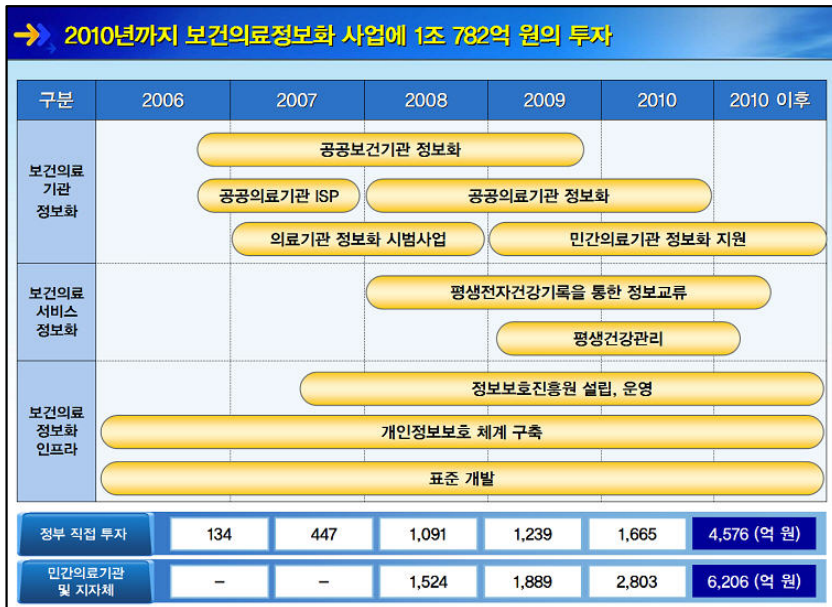
비록 지난해 1만 명에 못 미치는 외국인 환자가 다녀가기는 했지만 매년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청신호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적인 미인 기준

이 아시아 일대에서 인기를 끌게 되자 성형·미용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의료수준에 대한 대외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척추, 치과, 안과, 불임치료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내세운 중소병원들의 경우도 환자 구전(口傳)과 현지 의사 추천 등에 의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첨단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로봇 수술 성공 등으로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세계의 신뢰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암 치료기술과 심장수술, 장기이식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3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수준은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의 87%에 이르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2005년 대한의학회의 ‘미국 대비 국내 의료기술 수준 조사’에 따르면 치과 91%,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89% 등 전체적으로 미국의 80%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태국과 싱가포르 대비 50%, 일본 대비 20%, 미국 대비 10%에 지나지 않는 가격 경쟁력 또한 큰 장점이다. 반면 의사소통 문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대형병원들의 진료 포화상태, 의료사고 및 분쟁 시스템의 부재 등은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 난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아시아 의료관광 선진국들과의 경쟁에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까.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관광 분야를 선점한 그들의 격차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을 포함한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세계적인 인프라를 자랑하는 정보통신기술(ICT)력이 있기 때문이다.

〈표 1〉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SWOT 분석

내부 강점 (Internal Strengths)	내부 약점 (Internal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 우수한 의료기술력 • 중소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 가격 경쟁력 우위 • 지리적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환자 유치 프로세스 및 인프라 부재 • 의사소통의 어려움 • 부족한 서비스 마인드 • 국내 의료기술에 대한 낮은 국외 인지도 •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열악한 지원 • 대형병원의 진료 포화 상태
외부 기회 (External Opportunities)	외부 위협 (External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열풍 •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국가 인지도 상승 •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한 고용증대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경쟁국의 해외환자 유치 확대 •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대외압력 증대

국내 전역에 구축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PC, 모바일 이용 인터넷 사용 인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막대한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의 산출물로 시장 경쟁력 또한 뛰어나 한국은 이미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테스트 베드(test bed)로 각광 받고 있다.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한국의 노력은 차세대 정보통신 환경인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단기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고 산업·학계·연구소 협력체계에 의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 만성 질환자 증가,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 고조,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상승은 ‘u-헬스케어(ubiquitous healthcare)’라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하였고 2005년을 전후로 보건의료계는 물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까지 가세하여 대한민국은 지금 u-헬스케어의 열풍에 휩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EHR(Electronic Health Record)핵심 공통기술 연구개발 사업단’ 과 ‘보건의료정보화 사업 추진단’ 을 발족하여 u-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2> 국가 보건의료정보화 사업 로드맵 (2006)

의료계에서 2005년 ‘유비쿼터스 병원’ 으로 새롭게 태어난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하여 분당서울대학병원, 건국대학병원, 가톨릭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주도하에 의무기록을 전자화한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시스템과 태블릿 PC, PDA 폰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POC(Point of Care)시스템, 병원 간 화상회의 시스템과 전자태그(RFID)를 이용한 병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한창인가 하면 서울, 부산, 대구, 양산, 용인 등 각 지자체에서는 u-헬스케어에 포함된 ‘u-City’ 구현이 한창이다. 서울 성북구 보건소는 2006년부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PDA를 이용한 u-헬스케어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고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는 소방방재청과 함께 보건소 이용자를 위한 ‘u-건강지킴이 시범서비스’ 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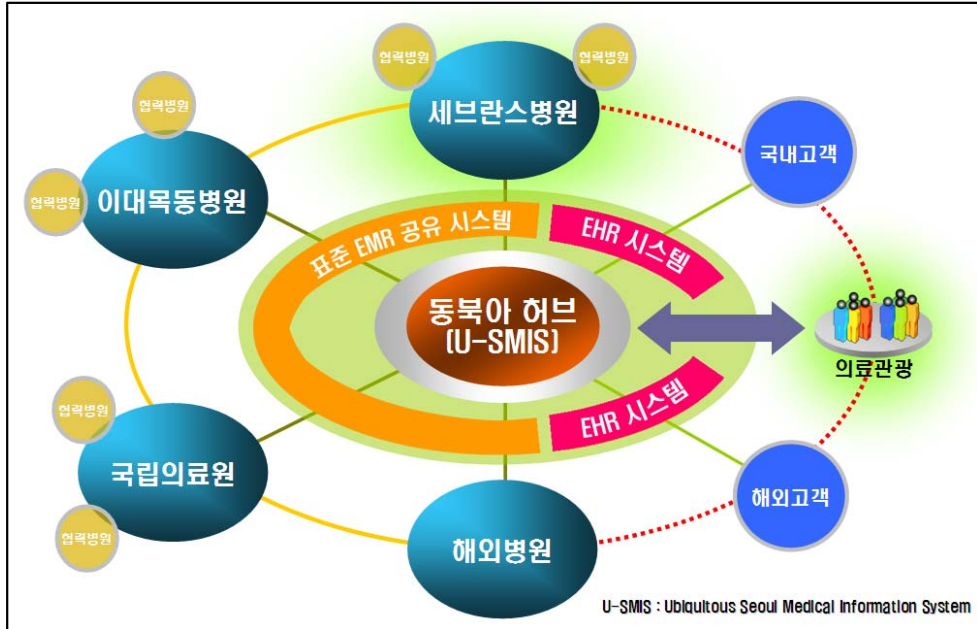
또한 민간의 참여도 활발해서 휴대폰과 헬스케어 기능을 접목시킨 ‘헬스폰(health-phone)’ 과 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원격진료’ 기술 부문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2010년 삼성전자의 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4대 씨앗사업’ 으로 퍼스널 멀티미디어 디바이스, 홈 네트워크, 가정용 로봇, 그리고 u-헬스케어를 꼽았다. LG전자는 현재 이동통신 시스템과 원격영상을 이용한 원격진료 시스템 분야의 특허를 보유하고 휴대폰을 이용한 헬스폰 개발 분야에서 잇달아 상용화 기술을 선보이고 있으며 KT 역시 홈 헬스케어와 대형병원을 연계하는 다양한 u-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부산시 u-City 구축 사업의 민간협력 파트너로 참여 중이다.

이렇듯 한국의 정보통신 환경이야말로 국가 간 의료산업 경쟁의 가장 큰 자산이며 든든한 무기로서 특히 국내 병원의 u-헬스케어 시스템은 그 자체로 해외환자의 방문을 유도하는 매력적인 아이템인 동시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 진료 시스템 구축의 수단이 된다.

III. 국제 진료 시스템 구축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쟁국들이 저마다 아시아의 의료 선진국을 꿈꾸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서울을 동아시아 중심의 ‘의료허브(medical hub)’ 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해 1962년 국내 최초로 외국인 진료소를 개설한 이래 45년 간 재한 외국인의 건강을 돌보는 국제진료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5년 역시 국내 최초의 ‘유비쿼터스 병원’ 을 선언함으로써 국내외 병원의 u-

헬스케어 표본이 된 세브란스병원과 손을 잡고 서울시를 의료산업의 메카이자 동북아의 의료허브로 부상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3〉 서울시 중심의 동북아 의료허브 구축 사업 개념도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사업의 목표는 오프라인에서 의료관광을 위한 해외 환자 유치를 넘어 국내외 병원, 관광 네트워크 기반 위에 세워진 의료허브 웹 포털(가칭 U-SMIS: Ubiquitous Seoul Medical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를 조회하고 교류할 수 있는 국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국내 대형병원으로는 세브란스병원과 이화여대 목동병원, 국립의료원이 참여 중이고 의료관광 에이전시인 에버케어와 시스템 개발업체인 나노씽크, 소프트넷 등과 산학연 협력체제하에 ‘유비쿼터스 의료허브 구축 사업단’을 구성하여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환자 - 병원 - 관광 에이전시를 연결함으로써 해외 환자가 의료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진료 의뢰 전 상담부터 치료를 마치고 출국한 후의 건강관리에 이르는 전체 진료 프로세스에 대한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단일한 창구로 제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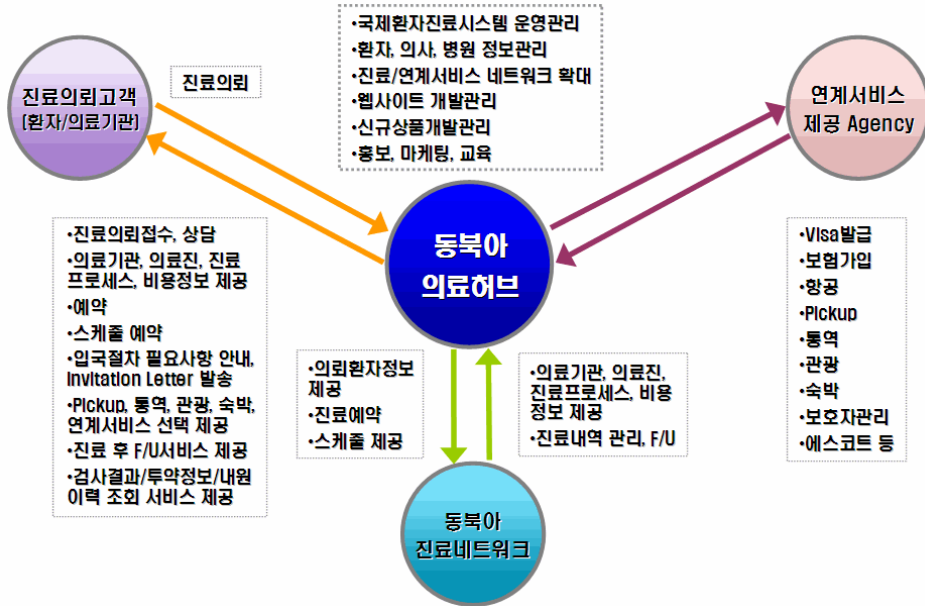


<그림 4> 국제 진료 시스템 개요도

사업단은 국제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다음의 5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련 국내의 협력병원 네트워크 뿐 아니라 관광, 숙박, 교통, 통역, 비자발급 등 연계 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환자와 보호자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둘째, 단일한 창구, 즉 동북아 의료허브 웹 포털을 통해 동북아 어디에서건 환자나 의료진이 필요한 진료·건강·병원·관광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셋째, 동북아 지역의 의료진이 환자 진료 목적으로 병원 간 진료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있을 때 환자의 동의하에 즉시 진료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병원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환자의 방문을 감소시키고 신속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넷째, 동북아 지역의 환자가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간에 그 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측정 한 건강정보와 통합하여 자가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중심의 평생 건강기록관리(EHR: Electronic Health Record)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

다. 다섯째, 유비쿼터스 환경의 핵심 기술인 RFID 기반의 병원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내 병원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사업단에서는 지난해 국제 진료 시스템의 To-Be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하나씩 구축하고 있다.



<그림 5> 서울시 중심 동북아 의료허브 국제 진료 시스템의 To-Be 모델

IV. 의료관광산업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지금도 일부에서 이미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들의 앞서가는 행보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관론과 한류를 등에 업은 미용·성형 수술과 건강검진 상품을 제외하면 의료관광으로 인한 산업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도시 병원급 총 548곳, 의원급 총 1,55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해외환자 유치현황’ 조사에서 외국인 진료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보의 부족’ 이라는 응답이 26.6%로 수위를 차지

했다는 사실은 의료허브 웹 포털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쌍방향 정보 소통을 늘리는 노력이 곧 현상극복의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뒷받침한다.

현대 사회가 정보화 사회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정보가 곧 자산이고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정보를 잘 전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석권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어떤 사업 분야에서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의 선망을 받고 있는 우리의 정보통신기술과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른 의료기술을 관광이라는 상품으로 잘 포장하여 홍보한다면 의료관광산업이야말로 서울시가 내세운 4년 내 관광객 1,200만 유치라는 ‘관광서울’ 목표 달성의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욱(2006),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의료산업 경쟁력 고찰”, 삼성의료경제연구소
- 보건복지부(2006), “공공의료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 및 시범사업 설명회
- 이윤태(2006),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 현황 및 과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현오석·이인호·조유진(2006), “동북아 의료허브 가능성과 추진과제”, 무역연구소